

독도소식지 2호를 내면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다케시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도라고 알려지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독도소식지 창간호를 낼 때는 4개월에 한 번씩 내려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제 나름 되로 생업을 하라, 인터넷 사이트 관리하라, 바쁜 나날이었지만 시일이 시일인 만큼 핑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 독도 문제 기고도 하고 독도행사에 다니라, 독도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고 독도홍보용 자료도 만들고... 심히 바쁜 나날이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제 독도사수연합회도 결성이 되었으니 회원님들에게 하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하여서도 자주 만들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도 이상훈



독도의 지번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34번지 37~96번지 101 필지입니다. 20번지가 4필지(20, 20-1, 20-2, 20-3), 30번지가 5필지(30, 30-1, 30-2, 30-3, 30-4)(35번지36번지 없음)

대한민국 정부에 고하는 독도문제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이 도발할 때 강력히 항의하겠다는 등 큰소리나 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본의 눈치나 살피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독도에 관심이 없다고 정부가 방치하면 더욱 안 됩니다. 정부는 독도문제는 분쟁이 아니라고 하면서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주변 바다를 공동수역으로 협상한 것은 독도의 주권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독도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세계 각국에 일본의 독도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서 일본은 남의 땅을 노리는 질 나쁜 나라라는 여론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에 일본의 소수 국민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KBS 방송과 단독 인터뷰하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외교 통상부 국장의 논평은 있었으나 일본 총리의 주장에 대통령의 항의가 없고 외교통부 국장의 논평이 되겠는가?) 김대중 정권 때 독도 지키기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에게 우리 땅을 너희 땅이라 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토를 지키고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을 찾아야 합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높여야 합니다. 독도를 지키려는 분들도 독도를 지킬 방법을 제시하는 분들이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독도사수연합회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높이기 위하여 "독도정책을 변경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독도주인(국민) 여러분 우리 땅 지키기 위함이니 함께 합시다. 獨島死守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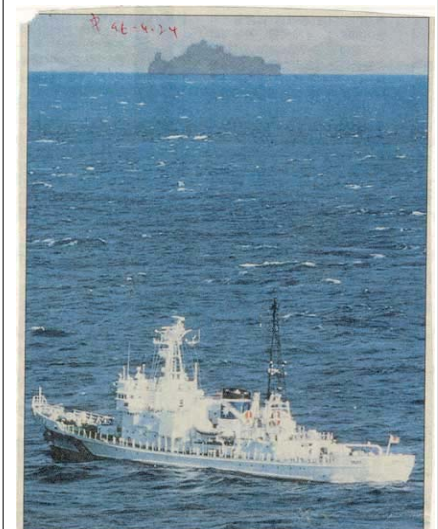
독도사수연합회는 독도정책을 제안 합니다.

- 1.독도연구기관에 연구비를 많이 투자하여 심도 있는 연구로 일본의 주장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반박하며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 2.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와 주거자유를 보장해서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과 유인도 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 3.독도를 관광지로 개발하여 독도에서 주민이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하고, 독도는 한국의 관광지라고 국제 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 4.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우리 땅을 지킨 분들이 예우를 받는 것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 5.잘못 맺어진 신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주권을 회복하여 한국은 독도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위내용을 서명 운동 중)
-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독도사수대 <http://cafe.daum.net/anadok>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시간이 날 때만 노력 할 동지를 구합니다.
 010-5844-4485, 010-9217-1386,

일본 연도별 독도 침략 사

1618년 일본 무라카와, 오타니 두 가문 불법 울릉도 출어, 벌목 취체시작.

1905.1.28 일본 내각회의, 독도가 무주지이므로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결정. 1905.4.14 시마네현, 현령 제18호로 독도에서의 강제포획에 대한 허가제 채택. 독도에서의 강제잡이 어업이권을 中井養三郎에게 허가.(1905.6.4) 1905.8.19 러일 전쟁 중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목적으로 '독도망루' 설치하여 일본해군 6명 상주 1952.5.28 일본 시마네현 어업시험장 소속 시험선 '시마네마루'호 독도영해 침범 1952.6.25 일본 수산시험선(미국기 계양) 1척 독도상륙. 일본인 9명이 독도(동도)에 입도하여 '독도 조난 어민 위령비' 파괴. 1953.6.19 시마네현, 해방이후에도 현 어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어업허가권 발부 1954.8.23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陰崎'호 1척, 영해침범. 독도의용수비대와 총격전 끝에 퇴각. 1959.8 시마네현 총무부장, 독도 인광채굴에 대한 광구세와 연체금을 자국민들에게 부과. 인광채굴권자는 1959.8.28 합계금 35,480엔을 시마네현에 납부. 1959.9.28 일본 극우단체(도쿄히비야) 24개 '독도돌격대'조직. 3척의 철선과 150명의 인원으로 독도탈취를 기도하다 실패. 1961.11.9 동경지방재판소, 인광채굴권자가 시마네현을 상대로 국가(일본)가 죽도(독도)에 대한 통치권을 완전히 회복 할 때까지 광구세 납부의무 없음에 대하여 항의하자, 광구 소재 지역에 대한 통치권이 상실된 경우가 아니라, 그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광구세의 부과징수권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결. 1992.4 일본극우단체(대일본정의국수회)행동대원 2명이주일한국대사관에 난입. '다케시마는우리 땅'이라며 난동 부림. 1996.2.9 이케다 일본외상 영유권 천명. "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니 한국은 경찰 수비대를 즉각 철수시키고 부착한 시설물을 철거하라". 1996.5.30. 하시모토 수상, 독도기점 선언, 1996.10.20 일본자민당, 독도, 조어도, 쿠릴열도 확보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움 1998.1 일본, 독도주변해역에 해저 광케이블 설치공사 1998.11 일본자위대, '동해의 한 섬'을 가장한 적 점령 섬 양륙훈련 실시 1999.12 일본인 독도로 호적이전 사실 확인. 6가구 7명 2000.5.9 일본 외무성, 2000년판 외교청서 독도 고유영토 설 주장.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 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은 일관돼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에 끈기 있게 대화를 거듭해나갈 방침'이라고 서술. 2000.7.7 데라다 데루스케 주한일본대사,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 주장"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는 물론 국제법 관점에서든 명백히 일본고유의 영토이며, 이것은 일본정부의 명확하고도 일관된 입장이다". 2000.9.19 일본 총리 모리 요시로 KBS 보도제작국 취재진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라고 밝혔다.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00.9.21 '국수(菊水)국방연합'일본민족 청년 동맹' 국수 보정회' 등 일본 우익단체들 방일중인 김 대통령 숙소인 뉴오타니 호텔 주변에서 스피커가 달린 중대형 차량 100여대를 동원해 차량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한국은 독도에서 나가라'일본 영토 다케시마 탈환'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반대'일왕 한국방문 반대'대북 식량지원 반대' 등의 구호를 차량에 붙인 채 서행하며 시위. 김대중 대통령 숙소 침입 시도, 2001/12/25 독도본부 위의 침략 외에도 많은 침략이 있습니다, 우리 땅 우리가 지킵시다, 독도사수연합회



獨島 観望は日守時 日本 수산보안청 어선순시선(5백t급)이 한·일간 독도영유권 분쟁이 한창이던 2월14일 이후 거의 매일 독도 부근 공해상에 나타나 양국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뒤에 보이는 섬이 독도의 동쪽섬(사진은 지난 4일 본사 취재진에 포착된 일본순시선, 본사 매키 J-BIRD에서 장문기 기자, 조종 이현우·이은희 기자).

"외교부 야스쿠니 반대단체 등록거부 부당"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반대 해온 비영리민간 단체가

외교통상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하려다 거부를 당하고 소송을 해서 이겼다, 재판장의 정당한 재판으로 생각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동행동의 주된 공익활동은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한 일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민간 외교활동"이라며 "이를 주관하는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 봐야 하므로 등록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일본과 외교문제만 생각하고 있다가 항상 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스쿠니반대 공동행동 한국위원회" 하이팅 국민 여러분 독도문제 일본의 눈치나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을 모아 지킵시다, 독도사수연합회

● 독도와 오끼노토리시마로 본 한·일 영토정책 (독도본부에서 퍼온 자료)

구분	독도	오끼노토리시마
사진		
수역도		
면적확보	0 km ²	430,000 km ² (통일 한국면적의 2배)
국제법적 자격	섬으로써의 자격 충분	암초(잔파도에도 잠길 정도)
양측 주장	대한민국 아무런 권리 못 가지는 암석	대한민국 아무런 언급 없음
	일본 훌륭한 섬이다. 일본영토가 되면 많은 사람 살게 하겠다.	일본 섬으로써의 권리행사
크기	면적 187,453m ²	면적 측정불가(역지 주장 1.5m ²)
	높이 168.5m	높이 측정불가(역지 주장 70cm)
	부속도서 89개	부속도서 없음
UN 해양법 121조 3항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않는다,	
	조선시대부터 어부들이 거주했다는 역사 기록이 나오는 섬이다	파도 때문에 새도 앉을 수 없는 암초
지금 상태	공동 관리수역(분쟁상태-영유권 미확정)에 들어 있음	일본영토

대한체육회는 왜 한반도기에 독도를 빼버렸나?

한국 언론도 아니고 일본 언론(2006.10.30. 서일본신문)에 실린 소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 우리 현실이 서글프다. 지난해 즉 2005년 12월부터 한국과 북한이 2008년 북경 올림픽 남북 단일팀 참가에 대해 서로 협상하는 자리에서 북한 대표가 남북단일기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넣자고 요구했는데 대한체육회가 이를 거절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독도본부에서 펴)

▷대한체육회, 남북단일기 단기 독도 표기 난색 많은 국민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대한체육회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른바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독도 표시는 외교분쟁을 초래하기 때문 이란다.

독도방심하면안된다,

독도문제는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가 발견 되면 우리국민 들 우리 땅 되었다고 독도문제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분

많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란 자료는 태정관(일본 최고기관)문서 일본과 관계가 없는 땅이란 자료가 있고 은주시청합기 에는 일본 서북쪽의 한계는 은기도(오기도)라는 문서도 있으며 일본인이 외국에 갈 때 허가 받는 도해면허를 받아서 울릉도 독도로 조업 하려고 온 것과 우리 땅으로 인정하고 조업 하려 못 가게 한 자료도 있고 울릉도 독도로 가는 어부를 사형을 시킨 자료도 있으며 일본해군성 지도에 조선영토로 표시한 것도 있으며 독도가 일본 영토 아니란 자료는 역사적 자료가 많으나 일본 정부는 일본 땅으로 역지를 쓰는데 밀려서 독도주변 어장이 중간수역(공동수역) 되었으며 세계지도는 다케시마로 표시되고 바다는 일본 해로 표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독도의 위험을 생각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너무도 답답합니다. 미 국립지리원에서 독도를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표시한 것을 부시 대통령의 명으로 수정 한 것으로도 방심을 하며 또 1951년에 일본이 법적으로 자기네 영토에서 제외 시켜다는 문서가 발견 되어도 일본 정부는 논평도 아직 없으며 어떤 역지를 쓰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우리 땅으로 해결이 된 것으로 생각 하고 방심한다는 것은 일본아 독도를 가져 가거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가요? 우리가 항상 뒷북을 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일본은 머리를 써서 독도를 뺏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욕만 하고 있어서는 일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도 논리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 아니란 근거와 한국 땅인 근거를 찾아서 일본의 주장이 틀린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이 시인을 할 줄 모르는 나라인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땅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안심 할 수 없습니다, 독도문제의 가장 큰 적은 독도 주인들이(국민들) 방심하고 관심이 너무 작은 것입니다. 독도사수대 (다음 카페)에 회원가입하세요,



독도사수연합회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활동을 합니다, 지면상 못 올린 사진들도 많으니 사이트를 방문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목숨을 걸고 우리 땅을 지키자는 단체입니다, 독도사수대


독도연합 총 본부장 이원수 선생님은 독도사수대 카페를 방문 하시고 회원이 되시어 독도를 지키는 일에 몸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함께 독도 문제로 서울을 5번이나 가시고 독도문제가 어려운 것을 아시고 정부가 적극 나서기를 종용하는 뜻에서 자결도 생각 하신 분입니다, 저와 함께 독도사수에 만전을 기 하자고 굳은 약속을 한분 입니다, 저에게는 가장 큰 동지입니다, 독도 이상훈



독도 연합 총본부

본부장 이 원 수
<http://cafe.daum.net/aq2002>
 H·P : 010-9217-1386
 TEL : (051) 896-6264
 E-mail : aq1017@hanmail.net
 aq1014@yahoo.co.kr


후원사



(주)부산 태종대 고속관광

DS5NOG 박 용 규
HP: 011-863-4220
 수학여행 전문
 문화관광부 관공사업등록제 714호
 부산관광지역시 운송사업등록 제30호

최선을 다하는.....
부산 태종대 고속관광 박용규 DS5NOG



신우정공

대표 신 재 식
(용 기)

- 사 출 금 형
- 건축자재
- 특 수 금 형
- 함마톤 난간대
- 다이캐스팅
- 배란다
- 금 형 설 계
- 계단.핸드레일 관련부품

부산광역시금정구회동동311-4
 TEL:(051)528-8839
 FAX:(051)528-8818
 H P:011-558-4198
 E-mail : sw8818@chol.com
 (Call sing : HL5JQN)

독도를 일본에 넘기자는 매국주장의 글입니다, 독도본부에서 펴

정부 '독도 EEZ 기점' 확정

韓·日 접점없는 지루한 협상 예고

정부는 5일 독도를 한·일 배타적경제수역 (EEZ) 경계의 기점으로 하기로 확정했다. 1996년 1차 EEZ 회담 이후 10년 만에 새로운 입장을 정한 것이다. 종전에는 울릉도-오키섬 중간선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방침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독도는 유인도"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독도 기점 EEZ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독도가 18만㎡의 비교적 큰 섬이며, 서도에서 식수로 사용 가능한 물이 나오고, 김성도씨 부부 및 독도 경비대원 40여명이 살고 있다는

정부가 독도를 EEZ 기점으로 정한 이유

- ❶ 18만㎡의 비교적 큰 섬
- ❷ 서도에서 식수로 사용가능한 물 분출
- ❸ 김성도씨 부부 및 독도 경비대원 40여명 거주



전한 유인도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중 기준'을 내세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희대 김찬규 명예교수는 "독도 기점이 되면 우리 EEZ는 약 2만㎢ 늘어나지만, 중국령 해초(海礁)와 동남초(東南礁)가 있는 서해, 그리고 일본령 도리시마와 남너군도가 있는 남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협상 타결 가능성 없어

우리 정부가 독도-오키섬 중간선을 EEZ로 하자고 하면 일본은 독도-울릉도 중간선을 제시할 것이 명백하다.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 땅이라고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런 주장을 굽히

정부 "유인島 적극주장" 일각선 "국제법상 논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센카쿠 열도나 오키노토리시마 등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 주장에 동의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정부 방침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의문을 제기했다. 영산대 류병운 교수는 "유엔 해양법협약 121조는 민간인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돌섬(rocks)은 EEZ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독도에서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의 문제가 남는 셈이다.

◆독도 기점은 한국이 손해인가

우리가 독도를 기점으로 하면 일본은 우리 남해에 있는 도리시마(鳥島)를 EEZ 기점으로

삼겠다고 할 가능성이 항상 제기돼 왔다. 정부는 그러나 도리시마의 경우 국제법상 섬인 독도와 달리 암석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독도와 비교할 때, 도리시마는 50㎡에 불과, 사람의 거주가 불가능하다. 외대 이장희 교수는 "도리시마는 도저히 섬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독도와 도리시마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독도가 국제법상 완

日도 암석 '기점' 주장땀 남해선 손해볼 우려도

지 않고 있다.

국제법과 관례는 EEZ 기점이 되는 섬의 크기 및 경제활동 인구 등을 비교해서 경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오키섬과 독도는 경제활동 인구, 면적 등에 엄청난 차이(지도 참조)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상 독도와 오키섬을 대등하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12~13일 일본에서 열릴 한·일 EEZ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압도적이다.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독도를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1996년 이후 4차례 열렸던 EEZ 회담도 궁극적으로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부딪혀 중단됐다.

이해원기자 (블로그may2.chosun.com)

독도에는 사람이 살 수 있다. 도리시마는 아래 사진과 같이 도저히 사람이 살수 없는 섬이다, 한국 외대 이장희교수는 도리시마와 독도는 비교 할 수 없이 독도는 EEZ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김찬규(경희대 명예교수)교수는 국제해양법상 EEZ를 가질 수 없는 도리시마를 일본이 경제수역 기점으로 주장 할지 모른다는 말을 할까? 매국적인 발언 아닌가? 애국적인 발언인가?



유인도가 아니면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도리시마와 오키노토리시마는 유인도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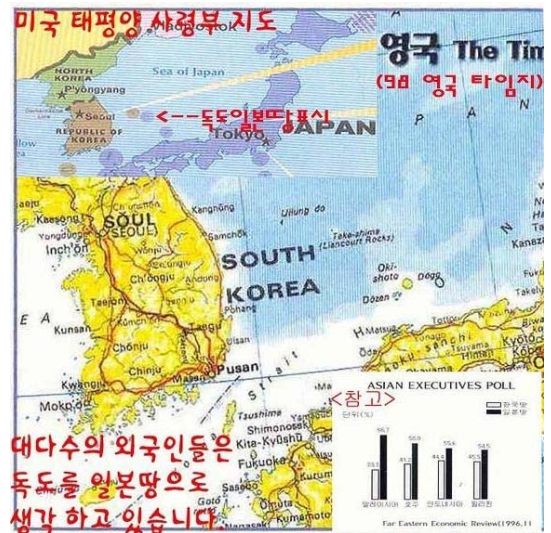


독도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립지리원이 독도를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미 지정 변경 했다가 미 대통령님의 지시로 원상회복 한 것 뿐입니다.(이문제로 독도문제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록을 한 것은 2005년부터 금년까지 4번째 기록이 됩니다. 방위백서에 기록을 하고 일본교과서에 기록을 해서 가르치면 나중에는 일본 전 국민이 정말 일본 땅으로 알게 되고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99년 미 태평양사령부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과 같은 색깔로 표기를 했습니다. 미 CIA지도도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해양 경계선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독도는 일본이 한국 땅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안심 할 수가 없습니다. 99년 1월부터 독도의배타적 경제수역이 잠정적 합의수역이 되었고 세계 각국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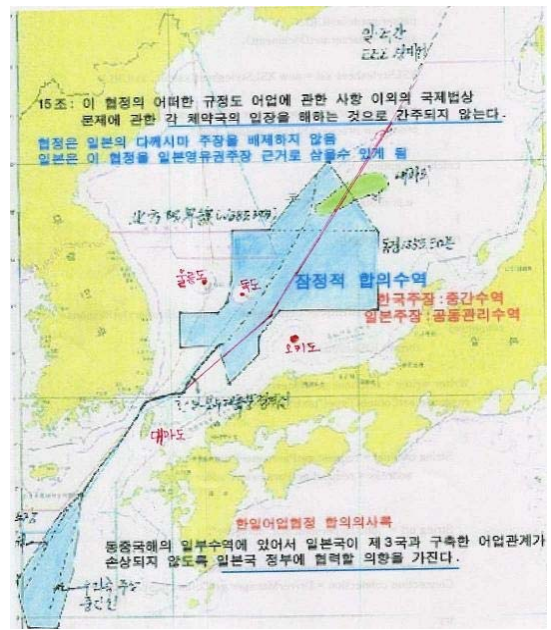
표시 되는 것이 90%가 넘습니다, 필자는 독도 섬과 바다가 모두 공동수역이면 50% 빼앗겼다고 보겠지만 독도 섬과 영해 12해리를 제외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잠정적 합의수역이 되었습니다. 구래서 필자는 독도를 40% 빼앗긴 것으로 봅니다. 세계 각국지도에 다케시마로 표시 되는 것은 서류상 다케시마가 된 것과 같다고 보며 필자는 30% 빼앗긴 것으로 봅니다. 두 가지를 합하여 70% 빼앗긴 것으로 봅니다. (필자와 생각이 다른 분이 계시면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민들이 독도의 심각성을 아시라고 쓴 글입니다. 방심하시는 분 많습니다.) 독도는 자원의 보물 창고입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목숨 걸고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합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이 독도에 관심을 주시고 같이 노력 하시면 독도는 지켜질 것이고 분들이 축구야구의 관심보다 독도에 관심이 없다면 독도를 영원한 우리 땅으로 보장 받지 못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독도를 빼앗기면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됩니다. 영토문제 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영토가 다른 나라로 넘어 갑니다. 영토 못 지키는 바보는 되지 맙시다. 독도사수대

<http://cafe.daum.net/anadok>

부산택시인의 쉼터소식지19호글임



각국이 일본 땅으로 표시 한 지도



어업협정으로 독도가 중간수역 안에 있다, 중간수역 즉 푸른 부분에는 해양조사도 일본과 협의 없이 하면 일본바다를 침범 한 것으로 간주 한데요,



일본의 국민에게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반한(反韓) 시위를 벌이고 있다 <http://tokdo.chollian.net/>

일본극우파는 독도를 일본 땅 만들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국민들은 독도영토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땅 지킵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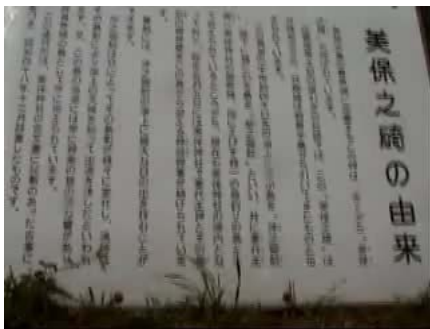
독도문제와 그 해결방안 고찰

독도에 대한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 한 일부 일본인들과



사진나홍주75세

일본정부의불법, 부당한 “독도가 일본 땅” 주장 때문에 독도는 문제 아닌 “문제”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 일본인들은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속하면서, 장차 원만한 타협을 내세워 “독도 공동관리”란 망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권”이란 “배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정부는 독도에 동, 서 양 방파제를 조속히 건설하여, 악천후 시는 인근 우리 어선들의 피항 지요, 평시에는 식수 및 연료 공급 등을 할 수 있는 어업전진기지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5가구 이상의 어민들의 독도정착과 어패류양식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합심, 단결하여 독도를 잘 지켜서 후대에 완전하게 넘겨 줄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을 다 하도록 진력합시다. 2008. 11. 30, 독도NGO포럼 회장 나홍주



일본이 한국을 지배해야 한다는 글 시마네현 오키 전망대에 있다 독도사수대 동영상게시판에 있음



일본에서 찍은 사진

日 ‘독도는 일본 땅’ 팸플릿으로 대규모 홍보 전세계 10개국 언어로 인터넷·책자 유포

2008년 12월 29일 (월) 올댓뉴스(www.allthatnews.co.kr) 19:36:57 임재현 기자 jh@allthatnews.co.kr

일본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홍보자료를 국내외에 대량으로 배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일 외무성이 지난 2월부터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만들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만 3500여부의 책자를 제작해 국내외에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외무성이 이달 초부터는 동일한 자료를 아랍어·중국어·프랑스어·독일어·포르투갈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관련 책자를 1000부씩 각 공관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14쪽 분량의 팸플릿은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28일 일본의 독도 홍보자료 유포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홈페이지의 해당 자료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님

위의 문제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를 한다고 말 했지만 일본의 정책 변경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엄중히 항의를 하고 홈페이지의 자료를

삭제 할 것을 요구 했다고 말 하지만 삭제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도 못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대통령님이 독도에 가신다면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코리아 이명박 대통령 독도에 가다, 로 세계 언론에 날 것이지 이명박 대통령 다케시마에 같다고 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대통령님 독도를 방문 하십시오, 국제사회는 다케시마로 알고 있는 것을 독도 라고 알리십시오, 독도사수대 <http://cafe.daum.net/anadok>

유끼노 문서

독도문제는 일본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정부는 무대응하면 상책이라는 글이다. 우리가 독도문제를

떠들면 분쟁이 생겨서 국제재판에 가게 되고 국제재판에 가면 독도를 빼앗긴다는 글 이다.박찬중씨가 독도서명운동을 할 때 출처는 일본이고, 유끼노 라는 닉네임 쓰는 사람의 글이다. 아직도 이 문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가만 있어야 된다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일본이 주장 할 때 가만 있으면 우리가 일본 땅으로 인정 하는 형태로 국제사회는 볼 수 있다, 일본은 묵인의 효과를 본다는 국제법 교수님들의 말씀이다, 일본의 주장을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다. 옛 이야기에 호랑이가 무서워서 떡을 다주고 잡아 먹인 할머니가 되지 말고 산돼지와 싸워서 산돼지는 죽고 다치기만 한 할머니가 되자, 독도 가만 있으면 안 된다, 독도는 우리 땅 협회[공식]

<http://cafe.naver.com/docdoinkorea.cafe> 독도 이상훈

자연이 살아야 인류가 산다!



자연보호/시민운동가 배한조

- 부산진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회장(현)
 - 자연보호운동 부산진구 협의회 사무국장(현)
 - 국민기초생활 대책 시민연대 자문위원(현)
 - 독도 지키기 운동 시민연합 부산 본부장(현)
 - 손해보험 보상문제 연구소 대표(현)
 - 독도 사수 연합회 운영위원장(현)
 - 부산진 동우회 회장(현)
- E-mail: bhj8080@yahoo.co.kr
24시간 귀 기울임:010-2345-5659

2008년 독도 무슨일?

1,미 국립지리원 독도주권 미 지정 지역으로 표시변경 원상회복 2,미 문부과학성 중등학교 학습지도 요령해설서 일본 땅 표기 공식발표 3,북경 올림픽 동해 일본해로 사용(98월24일)4,일 외무성 독도홍보자료 배포 5,시마네현 다케시마의날 기념 행사(2월22일)광고탑7,독도 EEZ 해양조사 공동실시(10월8일~13일) 6,시마네현 독도강탈강좌 7회실시(6월22일부터 월1회) 7,日 외무성 독도강탈 목적으로 각국어로 자료 배포 8,日정부 각료회의 일본영토 미해결 방위 백서에 수록 9,日국립지리원 일본 땅 표시 10,한승수 총리 독도방문 11,국군독도방어훈련 12,가수 김장훈 독도광고 냄 13,미 홈페이지 독도 한국 땅 포스터 일본향의로 삭제됨 14,독도 날씨정보 일본서 다케시마 날씨로 둔갑 15, 독도본부 독도강탈 자료 연구총서(1~7권 발행)

서명운동에 관한 질문과 답

문=서명운동에 주소를 쓰면 개인 정보가 노출 되지 않나요?
답=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이름과 주소만 있는 정보는 사용 할 곳이 없습니다, 정보 노출 염려 마십시오, (본면 제일 아래 제 주소 있어요,) 문= 청원서에 서명 하면 독도가 지켜지나요? 답= 서명 한다고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을 안 하더라도 정부의 독도정책을 청원서 내용으로 고치면 독도의 위험은 적어집니다, 정부의 정책을 고치기 위한 방법으로 서명운동 합니다, 서명 많이 하면 됩니다, 문= 왜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합니까? 답=독도연구를 많이 하여서 일본의 주장이 틀린 것을 반박하여 일본이 말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문= 지유입도와 주거자유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답= 국제사회가 독도에는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이란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문=독도를 관광지로 개발 하면 환경오염이 될 염려가 있는데 왜 관광지 개발을 요구 합니까? 답=독도를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할수록 실효적지배가 높아집니다, 관광지가 되면 사람이 많이 가고 사람이 많이 가면 독도에 횃집도 생기고 기념품 가게도 생기고 독도주민이 장사를 하고 어업을 하며 생계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독도주민이 정부나 민간단체에 지원을 받고 산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문=독도의용수비대를 왜 최고유공자로 모시고 그 공을 기려 달라 합니까? 답=독도의용수비대는 울릉도 민간인들 인데 일본인들이 독도를 침략하니 정부의 명령도 받지 않고 스스로 독도를 지킨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에 지키지 않았다면 독도는 1953년경 당시에 일본 땅이 되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공이 아주 큼니다, 영토를 지킨 그분들을 최고 유공자로 모셔야 합니다, 문= 어업협정이 잘 된 협정 이라는데 왜 제 협상 하라 합니까? 답= 99년1월 맺어진 어업 협상은 우리의 해양 주권을 절반 일본에게 준 것입니다,독도의 경제수역에 해양 조사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일본이 자기네 바다 침범 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고 합니다, 어업협정이 잘 못 맺어진 것은 독도의 주권이 일부 넘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서명운동 내용을 정부가 하면 독도의 주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일부 국민이 서명 한다고 정부가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수 국민이 서명 하면 정부가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명 운동을 해 주십시오, 독도사수연합회 독도 이상훈 010-5844-4485

독도사수연합회는독도연합총본부,독도는우리땅,함독도사랑회,독도사수대,국가민족한얼회,초록꿈사랑누리,(이상다음카페) 대한민국의독도사랑회,(네이버)독도는우리땅협회[공식],[네이버]위 카페들이 협조 합니다

독도소식지 편집을 마치면서

독도를 영원한 우리 땅이 되게 하기 위한 일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란 생각에 정성을 다하여 편집을 하였지만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잡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부끄럽다는 생각 보다는 독도문제를 독도의 주인인 여러분들이 아시고 독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광고는 후원사의 것이며 앞으로는 최소한 계절별로 소식지를 낼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매월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소식지는 뜻있는 여러분의 후원금과 독도사수연합회원 여러분의 회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심을 감사드리며 독도마트는 <http://dokdomart.com> 이익금 전액을 독도를 사수에 사용하기 위 한 것이니 가능 하시면 같은 값에 이용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편료를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소식지를 낼 때 마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면상 글씨가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송금계좌 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법인통장입니다) 612-816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3동 1595-29 상정주택 401호 051-782-9174 010-5844-4485 창간호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흑백으로 발행 후 크게 수정 한 것임으로 흑백 원본과 틀린곳있습니다,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독도사수대, <http://cafe.daum.net/anadok>